

#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 ... 시의회 '제한 조항' 논란 속 의결

학생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친 끝에 재적의원 26명 중 21명이 투표해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 제한 조항'(제9조 3항)을 삭제하고 예초교

육청이 상정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원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 의무화 조항을 수정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서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해 상정했던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폐기됐다.

상임위원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상정한 조례안 중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제9조)에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학교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

설하는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등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생활권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

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처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원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직원 연수인 인권연수의 의무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FTA 저지” 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반국본 주최로 열린 ‘한미FTA 저지 비상’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로존 다시 먹구름

## 무디스, 이탈리아 신용등급 'A2'로 3단계 강등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A2'로 3단계 하향조정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해 향후 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로 신용하는 유로존에 긴 먹구름이 더욱 두터워져 유로존과 세계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무디스는 이날 이탈리아의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단기채권 등급은 프라임-1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위기로 전반적인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와 같이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는 장기자금조달 위험이 커졌다고 등급 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제가 좋지 않고 글로벌 경제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성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리스크도 따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와 유로존의 경제, 금융 위험을 반영해 '부정적' 등급을 부여했다면서 불확실한 시장 여건과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이탈리아의 국제재정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이탈리아의 성장리스크와 막대한 재정적자, 유럽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평가작업을 계속해왔다.

경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19일 이탈리아의 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을 한단계씩 강등시켰다. /연합뉴스

# 유방암 공포

## 한국 여성 25명 중 1명 끝 발생 '충격' 환자 평균나이 49.8세 ... 증가율 91%

한국 여성이 평생 유방암에 걸리는 비율이 25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여성에게 '유방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5일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박찬흔)가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발표한 유방암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유방암 발생률이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앙암등록사업부가 국내 여성 인구대비 유방암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세로 봤을 때 유방암 발생률은 25명 중 1명꼴인 4%나 됐다.

연간 유방암 환자 수는 지난 2006년에 1만명(1만1275명)을 돌파한 이후 2008년에는 1만3859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만 23% 이상 급증했다. 또 OECD 국가 중 2002년 대비 유방암 환자 발생 증가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약 91%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일본의 증가율(31%)과는 60% 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내 여성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여성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유방암 발병현황(2008년)을 보면 40대 이하 환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40대가 39.8%로 1위였으며, 30대도 13.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40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에게 유방암이 주로 발생하는 미국, 유럽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유방암 환자의 95%가 40대 이후 여성이다.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을 봐도 미국은 61세지만, 우리나라는 49.8세로 11년 이상 젊다.

하지만, 유방암에 희망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유방암의 조기진단 성적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발이다. 유방암은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92%에 달한다. /연합뉴스

# “에이즈 감염돼도 20년 이상 생존 가능”

## 노벨 화학상 세시트먼

### 생존율 61% 암보다 높아

에이즈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장기질환이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무서운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질병관리본부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는 총 6292명으로 확진일로부터 5~

10년이 지난 환자가 25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염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는 총 978명이나 됐다. 2001년 이전에 확진을 받은 환자 수가 총 1천607명이므로 생존율은 60.8%에 달한다. 암 생존율(60%)보다 높은 수치다.

20년 이상 생존한 사람은 59명으로 20년 전에 확진을 받은 환자 중 35%를 차지했다. 1985년에 확진을 받아 26년간 살아온 환자가 최장기간 생존

자로 기록됐으며 최고령 감염인은 84세로 현재 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즈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3명 중 1명은 이러한 가족관계가 단절됐으며 5명 중 2명은 다녔던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준결정 발견 공로로 이스라엘의 다니엘 세시트먼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5일(현지시간) 세시트먼의 준결정(準結晶) 연구로 고체물질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세시트먼에게는 상금 1천만크로네(17억원 상당)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 한·중·일·아세안 쌀비축제 도입

## 비상시 상호지원 ... 한국 15만t 약정 7일 협정 서명

앞으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은 평시에 쌀을 약정·비축해뒀다가 지역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해 어떤 국가가 정상적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비축한 쌀을 상호지원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7일 자카

르타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협정은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으로 지원하는 국

제공공비축제도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전체 회원국의 약정물량은 78만 7000t으로, 국가별로는 한국 15만t(19%)을 비롯해 중국 30만t, 일본 25만t, 아세안 8만7000t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15만t의 쌀을 약정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 15만t내에서 쌀 지원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내 쌀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호자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웃찾사** **세상의야미** SBS **웃찾사** **MBC 세상의야미**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마이모** (남성발형 403호)